

Butadiene, 695달러로 40달러 급락

FOB Korea 680-710달러 형성 ... 미국은 661달러로 33달러 급등

Butadiene 가격은 10월18일 FOB Korea 톤당 680-710달러로 40달러 급락했다.

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대량의 수입물량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다운스트림 쪽의 수요마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크게 하락했다.

중동산 과잉물량은 10월말 또는 11월초 도착 예정으로 타이완을 향하고 있는데, 수입가격은 CFR 710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타이완에서는 10월 거래가격이 CFR 710달러 이하에서 형성돼 있고, ABS 수요약세에 따라 700달러 수준에서도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타디엔 수입가격은 11월 거래물량이 CFR 700-710달러 수준인데, 일부에서 CFR China 750달러에 공급할 의사를 나타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부타디엔 내수 계약가격은 11월 기준 ex-Pipeline 톤당 750달러로 FOB 750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부타디엔 수요기업들은 부타디엔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유럽지역 생산기업들과 수입형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부타디엔 가격은 10월18일 CIF US Gulf 파운드당 29.00-31.00센트로 톤당 평균 661달러를 형성해 33달러 급등했다. 10월 계약가격은 4센트 낮은 파운드당 26.00센트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hell이 부타디엔 추출 플랜트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감축함에 따라 수급이 타이트한 편으로, Shell은 루이지애나주 Norco 소재 부타디엔 26만톤 플랜트에서 트러블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가동률을 낮춰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0/ 21 >